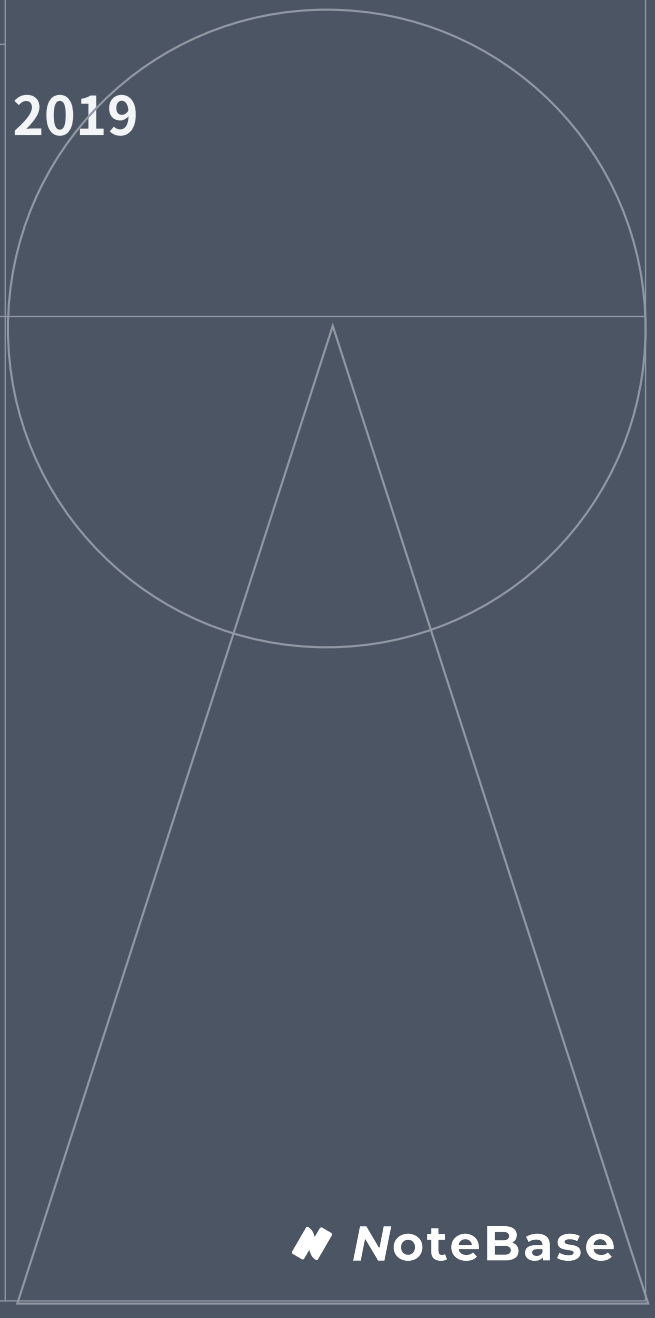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19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19

문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립쌍을 이루는 단어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이루고 있다.

① 성공(成功) : 실패(失敗)
② 시상(施賞) : 수상(受賞)
③ 판매(販賣) : 구매(購買)
④ 공격(攻擊) : 방어(防禦)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성공–실패'는 **목표를 이루었는지에 따른 결과의 대립**이다. 주고받거나 치고 막는 방향의 대립이 아니므로 방향 반의어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통 해설

방향 반의어는 **서로 맞서는 방향**을 전제로 관계나 이동·행동의 측면에서 대립하는 단어 쌍이다. 여기서 방향은 물리적인 이동 방향뿐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나 치고 막는 행동의 방향도 포함한다.

'시상–수상'은 상을 주는 쪽과 받는 쪽에서, '판매–구매'는 물건을 파는 쪽과 사는 쪽에서 같은 일을 나타낸다. '공격–방어'는 상대를 치는 행동과 그 공격을 막는 행동이 맞서므로 방향성을 지닌다. 반면 '성공–실패'는 **목표를 이룬 결과와 이루지 못한 결과**가 대립하는 것으로, 관계나 행동의 방향이 맞서는 쌍에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2. 토론에서 사회자가 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토론을 시작하면서 논제가 타당한지 토론자들의 의견을 묻는다.

② 토론자들에게 토론의 전반적인 방향과 유의점에 대해 안내한다.

③ 청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쟁점을 약화시킨다.

④ 토론자의 주장과 논거를 비판하는 견해를 개진하여 논쟁의 확산을 꾀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토론의 사회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다. 토론자들에게 진행 방향과 절차, 발언 시간 및 유의점을 안내하는 것은 이러한 진행 역할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토론은 미리 정한 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므로, 시작하면서 논제의 타당성을 토론자들에게 다시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회자는 **논제와 토론의 목적을 소개**하고 진행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② O: 사회자는 토론이 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이끈다. 이를 위해 토론의 전반적인 방향과 함께 **발언 순서·시간·준수할 규칙** 등을 안내한다. 이는 토론자들이 절차를 지키며 공정하게 의견을 주고받도록 돕는 역할이다.

③ X: 사회자의 역할은 대안을 직접 제시하여 쟁점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쟁점은 찬반의 의견이 맞서는 핵심 문제이므로, 사회자는 이를 **명료하게 정리하여 논의가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 청중의 의견을 듣더라도 토론의 쟁점을 흐리는 방향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④ X: 사회자가 토론자의 주장과 논거를 직접 비판하면 논쟁의 한쪽 당사자로 참여하게 되어 중립성을 잃을 수 있다. 사회자는 **찬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측의 발언 기회를 공정하게 조정하며, 논제에 맞게 토론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NoteBase

문 3. 다음 글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멕시코의 환경 운동가로 유명한 가브리엘 과드리는 1960년대 이후 중앙아메리카 숲의 25% 이상이 목초지 조성을 위해 벌채되었으며 1970년대 말에는 중앙아메리카 전체 농토의 2/3가 축산 단지로 점유되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87년 이후로도 멕시코에만 1,497만 3,900 ha의 열대 우림이 파괴되었는데, 이렇게 중앙아메리카의 열대림을 희생하면서까지 생산된 소고기는 주로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그렇지만 이 소고기들은 지방분이 적고 미국인의 입맛에 그다지 맞지 않아 대부분 햄버거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①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논거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② 이론적 근거를 나열하여 주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③ 전문 용어의 뜻을 쉽게 풀이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나열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25% 이상', '2/3', '1,497만 3,900 ha'라는 **통계 수치**로 목초지와 축산 단지 조성에 따른 산림 파괴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자료는 열대림을 희생하여 소고기를 생산했다는 내용을 뒷받침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중앙아메리카 숲의 '25% 이상'이 목초지 조성을 위해 벌채되었다는 비율, 전체 농토의 '2/3'가 축산 단지로 점유되었다는 비율, 멕시코에서 파괴된 열대 우림의 면적 '1,497만 3,900 ha'를 제시한다. 이처럼 **피해의 규모를 수치로 제시**하여 축산을 위한 산림 파괴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설득력을 높인다.

② X: 가브리엘 과드리의 말을 인용하지만, 그 내용은 벌채와 농토 점유의 규모에 관한 자료이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나 원리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③ X: '열대 우림', '축산 단지' 등의 표현은 나오지만 그 뜻을 풀어 설명하지는 않는다. 용어의 의미를 쉽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림 파괴와 소고기 생산·수출 및 소비의 실태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④ X: 벌채, 축산 단지의 점유, 열대 우림의 파괴는 글에서 **이미 일어난 사실**로 제시된다. 앞으로 나타날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산림 훼손의 규모와 생산된 소고기의 용도를 설명한다.

NoteBase

문 4.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는 것은?

① 이 가곡의 노래말은 아름답다.

② 그 집의 순대국은 아주 맛있다.

③ 하교길은 늘 아이들로 북적인다.

④ 선생님은 간단한 인사말을 건넸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인사말'은 [인사말]로 발음하여 'ㅁ' 앞에 **'ㄴ' 소리가 덧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공통 해설

사이시옷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나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쓸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구성만으로 사이시옷을 쓰는 것은 아니며, **결합할 때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 문항에서는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와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해당한다.

'노래+말'은 [노랜말]로 발음하여 'ㅁ' 앞에 'ㄴ'이 덧나므로 '노랫말'로 적는다. '순대+국'은 '국'의 첫소리 'ㄱ'이 [ㄲ]으로 나므로 '순댓국'으로 적는다. 한자어 '하교'와 순우리말 '길'이 결합한 말도 '길'의 첫소리 'ㄱ'이 [ㄲ]으로 나므로 '하굣길'로 적는다. 따라서 '노래말', '순대국', '하교길'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야 하는 표기이다.

반면 '인사+말'은 한자어와 순우리말이 결합하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만, 표준 발음이 **[인사말]**이어서 'ㄴ'이 덧나지 않는다. 사이시옷을 쓸 발음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인사말'로 적는다.

NoteBase

문 5. (가)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반영론은 문학 작품이 사회를 반영하여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라는 관점을 취한 비평적 입장이다.

(나)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박목월, 「나그네」 —

① 전통적 민요의 율격을 바탕으로 한 정형적 형식을 통해 정제된 시상이 효과적으로 드러났군.
②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을 외면한 채 유유자적한 삶만을 그린 것은 아닌지 비판할 여지가 있군.
③ 낭만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시적 분위기가 시조에서 보이는 선경후정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군.
④ 해질 무렵 강가를 거닐며 조망한 풍경의 이미지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감각을 자아내는군.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반영론은 작품이 **사회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드러내고 성찰하는지**를 살피는 관점이다. 아름다운 풍경 속을 유유히 가는 나그네의 모습에 주목하여,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비판하는 감상이 이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각 선지의 O/X는 (가)에 제시된 반영론적 감상으로서의 적절성을 뜻한다. 반영론은 작품을 사회 현실과 연결하여,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하는지를 살핀다.

① X: 전통적 율격, 시의 형식, 시상의 표현 효과를 살피는 것은 **작품 내부의 형식과 표현**에 초점을 둔 감상이다. (가)의 관점에 맞게 감상하려면 이러한 표현이 사회 현실을 어떻게 담아내는지, 현실의 문제를 성찰하게 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② O: (가)는 문학이 사회를 반영하고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한다고 본다. (나)의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와 '술 익는 마을', '저녁 놀'은 여유롭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든다. 이러한 묘사가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묻는 것은 작품과 사회 현실의 관계를 따지는 비판적 감상이다. 이는 나그네의 실제 삶에 고통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현실의 어떤 면을 드러내고 어떤 면을 담아내지 않았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③ X: 선경후정은 경치를 먼저 제시한 뒤 정서를 드러내는 구성 방식이다. 시적 분위기와 선경후정의 유사성을 살피는 감상은 **풍경과 정서의 구성 관계**에 초점을 둔다. (가)의 관점에서 감상하려면 낭만적 분위기가 사회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거나 현실의 문제를 가리고 있는지까지 연결해야 한다.

④ X: 강나루와 밀밭 길, 저녁 놀을 한 폭의 그림처럼 느끼는 것은 **시각적 이미지의 효과**를 살피는 감상이다. 풍경이 생생하게 그려진다는 설명만으로는 작품과 사회 현실의 관계를 밝히지 못한다. (가)의 관점에서는 그 풍경 속에 현실의 삶과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NoteBase

문 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책은 벗입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반가운 벗입니다. 배움과 벗에 관한 이야기는 『논어』의 첫 구절에도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않으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수험 공부로 보내야 하는 학생들에게 독서는 결코 반가운 벗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빨리 헤어지고 싶은 불행한 만남일 뿐입니다. 밑줄 그어 암기해야 하는 독서는 진정한 의미의 독서가 못 됩니다.
독서는 모름지기 자신을 열고, 자신을 확장하고, 자신을 뛰어넘는 비약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삼독(三讀)입니다. 먼저 글을 읽고 다음으로 그 글을 집필한 필자를 읽어야 합니다. 그 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필자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 발 딛고 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처지와 우리 시대의 문맥을 깨달아야 합니다.

① 독서는 타인의 경험이나 생각 등을 자기화(自己化)하는 과정이다.

② 반가운 벗과의 독서야말로 진정한 독자로 거듭날 수 있는 첩경(捷徑)이다.

③ 시대와 불화(不和)한 독자일수록 독서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기 쉽다.

④ 자신이 배운 것을 제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교우(交友) 관계가 중요하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글과 필자가 놓인 시대·사회를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성찰하는 것이 '삼독'이다. 이처럼 독서는 타인의 경험과 생각을 **자신의 이해와 성장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마지막 문단은 글을 읽고, 필자가 놓인 시대와 사회를 읽고, 나아가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타인의 경험과 생각을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자신의 처지와 우리 시대를 깨닫는다는 점에서, 독서는 그것을 **자기화하는 과정**이다. 자기화는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삶에 연결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② X: 첫 문단의 '반가운 벗'은 **책을 벗에 빗댄 표현**이다. 실제 친구와 함께 독서하는 것이 진정한 독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뜻이 아니다. 글에서 제시한 독서의 방법은 글·필자·독자 자신을 읽는 삼독이다.

③ X: 마지막 문단은 독서를 통해 자신의 처지와 시대의 문맥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대와 불화한 독자일수록 더 쉽게** 자신의 위치를 발견한다고 설명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것은 필자의 시대·사회를 이해하고 독자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④ X: 첫 문단의 『논어』 인용은 배움의 기쁨과 벗을 만나는 즐거움을 제시한 것으로, 배운 것을 제때 적용하려면 친밀한 교우 관계가 필요하다는 인과 관계를 말하지 않는다. 이 글이 강조하는 것은 친구와의 친밀함이 아니라 **독서를 통한 자기 이해와 확장**이다.

NoteBase

문 7.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① 그 중에 깨끗한 옷만 골라 입으세요.

② 어제는 밤이 늦도록 옛 책을 뒤적였다.

③ 시간 날 때 낚시나 한 번 같이 갑시다.

④ 사람들은 황급히 굴 속으로 모여들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옛'은 '지나간 때의'라는 뜻으로 명사 '책'을 꾸미는 **관형사**이다. 두 단어이므로 **'옛 책'**처럼 띄어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그중'은 범위가 정해진 여럿 가운데를 뜻하는 **한 단어인 합성어**이므로 붙여 쓴다. 조사 '에'도 앞말에 붙이므로 '그 중에'를 '그중에'로 고친다.

② O: '옛'은 '지나간 때의'라는 뜻의 관형사로, 뒤에 오는 명사 '책'을 꾸민다. '옛'과 '책'은 **각각의 단어이므로 띄어 쓰고**, 조사 '을'은 '책'에 붙여 '옛 책을'로 쓴다.

③ X: 이 문장은 낚시를 가는 횟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함께 가자고 제안하는 말이다. 여기서는 **'기회 있는 어떤 때에'를 뜻하는 부사 '한번'**을 써야 하므로 '한 번'을 '한번'으로 고친다. 횟수를 나타낼 때에는 관형사 '한'과 의존 명사 '번'을 띄어 '한 번, 두 번'처럼 쓴다.

④ X: '굴속'은 굴의 안을 뜻하는 **한 단어인 합성 명사**이므로 붙여 쓴다. 조사 '으로'도 앞말에 붙이므로 '굴 속으로'를 '굴속으로'로 고친다.

NoteBase

문 8.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가을일[가을릴]
㉡ 텃마당[턴마당]
㉢ 입학생[이팍쌩]
㉣ 흙먼지[흥먼지]

① ㉠: 한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② ㉡: 인접한 음의 영향을 받아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③ ㉢: 음운 변동 전의 음운 개수와 음운 변동 후의 음운 개수가 서로 다르다.

④ ㉣: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규칙이 적용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입학생'에서는 **ㅂ과 ㅎ이 ㅍ으로 축약**되어 음운 수가 하나 줄어든다. 함께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는 ㅅ이 ㅆ으로 바뀌는 교체이므로 음운 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을일'은 가을일 → [가을닐] → [가을릴]의 과정을 거친다. 자음으로 끝나는 앞말과 '이'로 시작하는 뒷말 사이에 ㄴ이 첨가되고, 이 ㄴ이 앞의 ㄹ에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첨가와 교체의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② X: ㉡ '텃마당'은 텃마당 → [턷마당] → [턴마당]의 과정을 거친다. 먼저 받침 ㅅ이 ㄷ으로 바뀌고, 이 ㄷ이 뒤의 비음 ㅁ에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이때 ㄷ과 ㄴ은 모두 치조음이므로 조음 위치는 그대로이며,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어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동화**가 나타난다. 결과로 나온 ㄴ과 뒤의 ㅁ도 각각 치조음과 양순음이므로 조음 위치가 같지는 않다.

③ O: ㉢ '입학생'에서는 받침 ㅂ과 뒤의 ㅎ이 합쳐져 ㅍ이 되는 거센소리되기와, ㄱ 뒤의 ㅅ이 ㅆ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이팍쌩]으로 발음된다. 거센소리되기는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축약**이므로 음운 수가 하나 줄고, 된소리되기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이므로 음운 수가 유지된다. 따라서 전체 음운 수는 변동 전보다 하나 적다.

④ X: ㉣ '흙먼지'는 흙먼지 → [흑먼지] → [흥먼지]의 과정을 거친다. 겹받침 ㄺ에서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뒤, 남은 ㄱ이 뒤의 비음 ㅁ에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선지가 설명한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여기서는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자음이 대표음으로 바뀌는 그 규칙과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문 9. 어법에 어긋난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 '접수되었을 때에는'은 사건이나 행위가 완료된 상황을 나타내므로 '접수될 때에는'으로 바꾼다.

②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 교부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
→ '과업 지시서 교부'와 서술어 '교부하다'는 의미상 중복되며 호응하지 않으므로 앞의 '교부'를 삭제한다.

③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을 제외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목적어 '수역을'과 서술어 '제외되다'는 호응하지 않으므로 '제외된'은 '제외한'으로 바꾼다.

④ 관련 도서는 해당 부서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열람한다.
→ 서술어 '열람하다'는 부사어 '관계자에게'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열람하게 한다.'와 같이 바꾼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접수되었을 때에는'은 **접수가 완료된 상황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먼저 접수된 제안의 우선권을 정하는 문맥이므로, 완료를 나타낸다는 이유로 '접수될 때에는'으로 고칠 필요가 없다.

선지별 해설

① X: '접수되었을 때에는'은 접수가 이루어진 상황을 조건으로 삼는 표현이다. 이 문장은 유사한 제안이 접수된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권을 정한다는 뜻이므로, **접수의 완료를 나타내는 표현이 문맥에 어긋나지 않는다**. '-었-'이 쓰였다는 사실 자체는 어법상 오류가 아니며, 원문의 '접수되었을 때에는'을 그대로 두어도 된다.

② O: '교부하다'는 문서 등을 내어 주는 행위이므로 무엇을 교부하는지가 드러나야 한다. 원문은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 교부는'이라고 하여 교부 행위를 다시 교부한다고 서술하는 문제가 있다. 앞의 '교부'를 삭제하면 **교부하는 대상인 안내서와 과업 지시서**가 서술어와 호응한다. 수정한 문장은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이다.

③ O: '제외되다'는 어떤 대상이 범위에서 빠짐을 나타내므로 '수역이 제외되다'와 같이 쓰인다. 원문처럼 목적격 조사 '을'이 붙은 '수역을'과 연결하려면 **목적어를 취하는 '제외하다'**를 써야 한다. 따라서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을 제외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로 고치면 호응이 맞는다.

④ O: '열람하다'는 책이나 문서를 읽어 본다는 뜻으로, '관계자가 관련 도서를 열람한다'와 같이 열람하는 사람이 주체가 된다. 원문의 '관계자에게 열람한다'는 관계자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는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관계자가 열람하도록 한다는 사동 표현을 써서 '관련 도서는 해당 부서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열람하게 한다.'로 고치면 된다.

NoteBase

문 10.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고인(古人)도 날 몯 보고 나도 고인(古人) 몯 뵈
고인(古人)을 몯 뵈도 녀던 길 알픠 잇닉
녀던 길 알픠 잇거든 아니 녀고 엇뎔고
(나) 술은 어이ᄒᆞ야 됴ᄒᆞ니 누룩 섯글 타시러라
국은 어이ᄒᆞ야 됴ᄒᆞ니 염매(鹽梅) 툴 타시러라
이 음식 이 ᄠᅳᆮ을 알면 만수무강(萬壽無疆)ᄒᆞ리라
(다) 우레ᄀᆞᆺ치 소ᄅᆞ나ᄂᆞᆫ 님을 번ᄀᆡᄀᆞᆺ치 번ᄯᅳᆺ 만나
비ᄀᆞᆺ치 오락ᄀᆡ락 구름ᄀᆞᆺ치 헤여지니
흉중(胸中)에 ᄇᆞᄅᆞᆷᄀᆞᆺᄐᆞᆫ ᄒᆞᆫ슘이 안ᄀᆡ 피듯 ᄒᆞ여라
(라) 하하 허허 ᄒᆞᆫ들 내 우음이 졍 우움가
하 어쳑 업서셔 늣기다가 그리 되게
벗님ᄂᆡ 웃디들 말구려 아귀 쁘여디리라

① (가): 연쇄법을 활용하여 고인의 길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나): 문답법과 대조법을 활용하여 임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③ (다): 'ᄀᆞᆺ치'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운율감을 더하고 있다.

④ (라): 냉소적 어조를 통해 상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나)는 술과 국을 만드는 법을 묻고 답하며, 비슷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 놓는 **대구법**을 활용한다. 서로 반대되는 속성을 맞세우는 **대조법은 드러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는 앞 구절의 '고인'과 '녀던 길'을 다음 구절에서 이어받는 **연쇄법**을 활용한다. 고인을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그들이 걸어간 길은 눈앞에 있으니,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어찌하겠느냐고 되묻는다. 이러한 물음에는 고인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② X: (나)는 술과 국을 만드는 법을 묻고 각각 누룩과 염매를 넣는다고 답하는 문답법을 사용한다. 두 구절은 **비슷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 배치하는 대구법**을 활용하며, 서로 반대되는 속성을 맞세우는 대조법은 아니다. 종장의 '만수무강'에는 임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다.

③ O: (다)는 임을 만나고 헤어지는 모습과 가슴속 한숨을 우레·번개·비·구름·바람에 빗댄다. 이때 '~같이'라는 뜻의 말을 되풀이하여 **비슷한 말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운율감**을 형성한다.

④ O: (라)는 겉으로 웃으면서도 자신의 웃음이 참된 웃음인지 되묻고, 상대에게 잇몸을 드러내며 웃지 말라고 한다. 웃음 속에 **비꼼과 불쾌감**을 담아 상대를 대하는 냉소적 어조가 드러난다.

NoteBase

문 11. 다음에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맞게 쓴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	의미	문장
살다	경기나 놀이에서, 상대편에게 잡히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 있거나 생생하게 일어나다.	㉢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

① ㉠: 장기에서 포는 죽고 차만 살아 있다.

② ㉡: 그는 벼슬을 살기 싫어 속세를 버렸다.

③ ㉢: 옷에 풀기가 아직 살아 있다.

④ ㉣: 그렇게 세게 부딪혔는데도 시계가 살아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풀기가 살아 있다'는 **풀의 빳빳한 성질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은 기억 등이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 있거나 생생하게 떠오르는 경우**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차만 살아 있다'는 차가 **상대편에게 잡히지 않고** 장기 말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기나 놀이에서 잡히지 않고 제 기능을 한다는 ㉠의 의미에 맞는다.

② O: '벼슬을 살다'는 벼슬을 맡아 **그 직분이나 신분에 따른 생활을 하다**라는 뜻이다. 벼슬하는 생활을 하기 싫어 속세를 버렸다는 문장이므로 ㉡의 의미에 맞는다.

③ X: '옷에 풀기가 살아 있다'는 옷에 먹인 **풀의 빳빳한 성질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이다. 마음이나 의식 속에 무엇이 남아 있거나 생생하게 일어난다는 ㉢의 의미와는 다르다. ㉢에 맞는 문장은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마음속에 살아 있다.'처럼 고칠 수 있다.

④ O: '시계가 살아 있다'는 충격을 받았는데도 시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한다**는 뜻이다.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지 않고 제 기능을 한다는 ㉣의 의미에 맞는다.

NoteBase

문 12.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해 홍○○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홍 교수: 네, 반갑습니다.
진행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요?
홍 교수: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게 유도하여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심각한가요?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홍 교수: 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대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이 2014년에는 9.0%였으나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17년에는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 전체 운전자 중에서 고령 운전자에 해당하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홍 교수: 네,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차량 성능이 월등히 좋아진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다고 해도 무작정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만 할 수는 없을 테고, 뭔가 보완책이 있나요?
홍 교수: 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취지 자체만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나요?
홍 교수: 일회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아, 운전면허를 반납한 당시에만 교통비가 한 차례 지원된다는 말씀이군요.
홍 교수: 네. 이분들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이 제도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고령자 친화적인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필요할 듯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① 상대방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지적하며 인터뷰를 마무리짓는다.

② 상대방이 인용한 통계 자료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제시한다.

③ 상대방이 제시한 정보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한다.

④ 상대방에게 해당 제도의 시행 배경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진행자는 홍 교수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에 **보완 의견을 덧붙이고 감사 인사**로 인터뷰를 마친다. 상대방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는 발언은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마지막에 진행자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홍 교수의 말에 '그에 더해'라며 고령자 친화적인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제안한다. 이는 상대방의 의견을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기존 의견에 보완책을 덧붙인 것**이다. 이어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로 인터뷰를 마무리한다.

② O: 홍 교수가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이 2014년 9.0%에서 2017년 12.3%로 증가했다는 통계를 제시하자, 진행자는 고령화로 전체 운전자 중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늘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한다. 통계 수치를 되풀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증가 원인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제시한 것이다.

③ O: 진행자는 제도의 목적과 교통사고 통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뭔가 보완책이 있나요?'라고 묻고, 교통비 지원에 대한 답변 뒤에는 '혹시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나요?'라고 묻는다. 이미 들은 정보에서 더 나아가 **보완책과 시행상의 문제점이라는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④ O: 진행자는 제도가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심각한가요?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라고 묻는다. 이는 제도 시행의 배경이 되는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홍 교수는 이에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제시한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명백히 모순되는 두 개의 견해를 취했다. 그들은 인간의 위치를 자연계 안에서 해명하려고 애썼다. 역사의 법칙이란 것을 자연의 법칙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다. 다른 한편, 그들은 진보를 믿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데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던가? 헤겔은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고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뚜렷이 구분했다. 반면, 다윈은 진화와 진보를 동일한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모든 혼란을 정리한 듯했다. 자연도 역사와 마찬가지로 진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화의 원천인 생물학적인 유전(biological inheritance)을 역사에서의 진보의 원천인 사회적인 획득(social acquisition)과 혼동함으로써 훨씬 더 심각한 오해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오늘날 그 둘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것이다.

① 자연의 진보에 대한 증거

② 인간 유전의 사회적 의미

③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

④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글은 계몽주의 사상가·헤겔·다윈이 **진보와 진화의 관계**를 어떻게 보았는지 제시하고, 생물학적 유전과 사회적 획득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여러 견해와 그에 대한 비판을 포괄하는 제목이 적절하다.

NoteBase

핵심 풀이

견해의 전개: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역사의 법칙을 자연의 법칙과 동일하게 여기면서 진보를 믿었다. 글은 이들이 자연도 목적을 향해 진보한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묻는다. 이어 헤겔은 역사는 진보하지만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다고 구분했고, 다윈은 진화와 진보를 동일시하여 자연도 역사처럼 진보한다고 보았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글의 중심은 **진보와 진화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이다.

필자의 비판: '그러나' 이후에는 진화와 진보를 동일시할 때 생기는 문제를 지적한다. 글에 따르면 진화의 원천은 **생물학적 유전**이고, 역사적 진보의 원천은 **사회적 획득**이다. 필자는 두 원천을 혼동하면 오해가 생기며, 오늘날에는 둘을 분명히 구별한다고 밝힌다. 따라서 자연의 진보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글로 읽어서는 안 된다.

제목의 범위: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들'은 여러 사상가의 관점과 두 개념을 구별해야 한다는 결론을 함께 포괄한다. ①의 '자연의 진보에 대한 증거'는 글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맞지 않는다. ②의 '인간 유전의 사회적 의미'는 생물학적 유전과 사회적 획득의 구별을 인간 유전의 사회적 의미에 관한 논의로 바꾼 것이다. ③의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은 도입부의 일부 내용에 치우쳐, 이후 전개되는 진보와 진화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

NoteBase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 소사가 말하기를, “신부(新婦)가 이제 내 집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남편을 도울꼬?”
사씨 대답하여 말하기를, “첩(妾)이 일찍 아비를 여의고 자모(慈母)의 사랑을 입사와 본래 배운 것이 없으니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치 못하옵거니와 어미 첩을 보낼 제 중문(中門)에 임(臨)하여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공경(恭敬)하며 반드시 경계(警戒)하여 남편을 어기오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이 경경(耿耿)하여 귓가에 있나이다.”
유 소사가 말하기를, “남편의 뜻을 어기오지 말면 장부(丈夫) 비록 그른 일이 있을지라도 순종(順從)하랴?”
사씨 대 왈, “그런 말이 아니오라 부부(夫婦)의 도(道) 오륜(五倫)을 겸(兼)하였으니 아비에게 간(諫)하는 자식이 있고 나라에 간하는 신하 있고 형제(兄弟) 서로 권하고 붕우(朋友) 서로 책(責)하나니 어찌 부부라고 간쟁(諫諍)치 않으리이까? 그러하나 자고로 장부(丈夫) 부인(婦人)의 말을 편청(偏聽)하면 해로움이 있삽고 유익(有益)함이 없으니 어찌 경계 아니 하리이까?”
유 소사가 모든 손님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나의 며느리는 가히 조대가*에 비할 것이니 어찌 시속(時俗) 여자가 미칠 바리오.”라고 하였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에서 —
* 조대가: 『한서(漢書)』를 지은 반고(班固)의 누이동생인 반소(班昭). 학식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왕실 여성의 스승으로 칭송이 자자했다.

① 사씨의 어머니는 딸이 남편에게 맞섰던 일을 비판하고 있다.

② 사씨는 홀어머니를 모시느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③ 사씨는 부부의 예에 따라, 남편이 잘못하면 이를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④ 유 소사는 며느리와의 대화를 통해, 효성이 지극한 사씨의 모습에 흡족해 하고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사씨는 '어찌 부부라고 간쟁치 않으리이까?'라고 하여, 부부 사이에도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도록 말해야 한다**고 본다. 남편을 공경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사씨의 어머니는 혼인하여 떠나는 딸에게 '남편을 어기오지 말라'고 **앞으로의 태도를 당부**했다. 딸이 이미 남편에게 맞섰던 일을 비판한 것이 아니다.

② X: 사씨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고 말할 뿐, 홀어머니를 모시느라 배우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본래 배운 것이 없으니'는 유 소사의 물음에 답하기에 앞서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며, 뒤이어 부부의 도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③ O: 사씨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신하가 나라에 잘못을 바로잡도록 말하는 것처럼 부부 사이에도 '간쟁'이 필요하다고 본다. 간쟁은 잘못을 지적하여 고치도록 말하는 것이므로, 남편에게 그른 일이 있어도 무조건 따르겠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남편이 아내의 말만 치우쳐 듣는 '편청'도 경계하여, **간쟁의 필요성과 편청의 위험**을 구별한다.

④ X: 유 소사는 사씨가 부부의 도리를 설명한 뒤 그를 조대가에 비유하며 칭찬한다. 주석에서 조대가는 학식과 덕망이 뛰어난 인물로 소개되므로, 유 소사가 흡족해하는 까닭은 사씨의 **학식과 덕성**에 있다. 어머니를 지극히 모시는 효행을 확인하고 칭찬한 것이 아니다.

NoteBase

문 15. 다음 글에서 '소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깥은 어둡고 뜰 변두리의 늙은 나무들은 바람에 불려 서늘한 소리를 내었다. 처마 끝 저편에 퍼진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게 박혀 있으나, 아스무레한 초여름 기운에 잠겨 있었다. 집은 전체로 조용하고 썰렁했다.
꽝 당 꽝 당.
먼 어느 곳에서는 이따금 여운이 긴 쇠붙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밑 거리의 철공소나 대장간에서 벌겋게 단 쇠를 쇠망치로 뚜드리는 소리 같았다.
근처에는 그런 곳은 없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굉장히 먼 곳일 것이었다. 굉장히 굉장히 먼 곳일 것이었다.
꽝 당 꽝 당.
단조로운 소리이면서 송곳처럼 쑤시는 구석이 있는, 밤중에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이상하게 신경을 자극했다.
"참, 저거 무슨 소리유?"
영희가 미간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글쎄, 무슨 소릴까……"
정애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이 근처에 철공소는 없을 텐데."
"……"
정애는 표정으로만 수긍을 했다.
꽝 당 꽝 당.
그 쇠붙이에 쇠망치 부딪치는 소리는 여전히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밤내 이어질 모양이었다. 자세히 그 소리만 듣고 있으려니까 바깥의 선들대는 늙은 나무들도 초여름 밤의 바람에 불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소리의 여운에 울려 흔들리고 있었다. 저 소리는 이 방안의 벽 틈서리를 쪼개고도 있었다. 형광등 바로 위의 천장에 비수가 잠겨 있을 것이었다.

— 이호철, 「닳아지는 살들」에서 —

① '서늘한 소리'는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한다.

② '꽝 당 꽝 당' 소리는 인물의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촉발한다.

③ '단조로운 소리'는 반복적으로 드러남으로써 모종의 의미가 부여된다.

④ '소리의 여운'은 단선적 구성에 변화를 주어 갈등 해소의 기미를 강화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소리의 여운'은 벽을 쪼개고 천장에 비수가 있는 듯한 위협적인 이미지로 이어져 **불안과 긴장을 심화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에 변화를 주거나 갈등 해소의 기미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늙은 나무들이 내는 '서늘한 소리'는 어두운 바깥 풍경, 조용하고 썰렁한 집의 모습과 어우러져 **스산하고 불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후 정체를 알 수 없는 쇠붙이 소리가 등장하기 전부터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마련한다.

② O: '꽝 당 꽝 당' 소리는 '송곳처럼 쑤시는 구석'이 있으며 '신경을 자극'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영희가 미간을 찌푸리고 소리의 정체를 묻는 모습은 그 소리가 인물에게 **불쾌감과 신경의 긴장**을 일으켰음을 보여 준다.

③ O: '꽝 당 꽝 당'이라는 단조로운 소리는 서술과 대화 사이에 반복해서 나타난다. 처음에는 먼 곳에서 들리는 쇠붙이 소리로 제시되지만, 뒤로 갈수록 나무를 흔들고 방 안의 벽을 쪼개는 듯한 것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반복과 묘사의 변화를 통해 소리에 **인물의 불안과 위협감을 드러내는 의미**가 부여된다.

④ X: '소리의 여운'이 나무를 흔들고 벽 틈서리를 쪼갠다는 묘사에 이어 천장에 비수가 잠겨 있을 것이라는 상상이 제시된다. 이는 소리에서 느끼는 위협이 방 안으로까지 번지면서 **불안과 긴장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사건은 같은 밤의 흐름 속에서 이어지며, 소리의 여운 때문에 시간 순서가 바뀌거나 별개의 사건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선적 구성에 변화를 주어 갈등 해소의 기미를 강화한다'는 설명은 '진행 중인 장면에서 위협감을 확대하여 긴장을 고조한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나는 <일 포스티노>를 세 번쯤 빌려 보았다. 그 이유는 이 아름다운 영화 속에 아스라이 문학이 똬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처럼 쉽고도 절실하게 설명해 놓은 문학 교과서를 나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칠 때 나는 종종 영화 <일 포스티노>를 활용한다. 수백 마디의 말보다 <일 포스티노>를 함께 보고 토론하는 것이 시의 본질에 훨씬 깊숙이, 훨씬 빨리 가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
시를 공부하면서 은유에 시달려 본 사람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 수차례 무릎을 쳤을 것이다. 마리오 루폴로가 네루다에게 보내기 위해 고향의 여러 가지 소리를 녹음하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여기서 해변의 파도 소리를 녹음하는 것이 은유의 출발이라면 어부들이 그물을 걷어 올리는 소리를 담고자 하는 모습은 은유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밤하늘의 별빛을 녹음하는 기막히게 아름다운 장면에 이르면 은유는 절정에 달한다. 더 이상의 구차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① 영화 <일 포스티노>는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과서와도 같다.

② 영화 <일 포스티노>의 인물들은 문학적 은유의 본질과 의미를 잘 알고 있다.

③ 시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얻기 위해 영화 <일 포스티노>를 참고할 만하다.

④ 문학의 미적 자질과 영화 <일 포스티노>의 미적 자질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영화의 장면이 **은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글쓴이의 평가이다. 이것만으로 **영화 속 인물들이 은유의 본질과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글쓴이는 이 영화만큼 시가 무엇인지를 쉽고 절실하게 설명한 문학 교과서를 보지 못했다고 하며, 실제로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칠 때 영화를 활용한다. 따라서 이 영화는 **시의 이해를 돕는 교과서**와 같다는 설명이 글의 내용에 부합한다.

② X: 글쓴이는 마리오가 파도 소리, 그물을 걷어 올리는 소리, 별빛을 녹음하는 장면을 은유의 출발·확장·절정으로 해석한다. 이는 **장면에 대한 글쓴이의 해석**이며, 등장인물들이 은유의 본질과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선지의 내용은 '영화의 장면들은 관객이 문학적 은유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글쓴이는 영화를 함께 보고 토론하면 수백 마디의 말보다 시의 본질에 더 깊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음을 경험했다고 한다. 따라서 **시의 본질을 탐구하는 자료**로 이 영화를 참고할 만하다는 이해가 성립한다.

④ O: 글쓴이는 아름다운 영화 속에 문학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하고, 별빛을 녹음하는 장면을 기막히게 아름답다고 평가하면서 은유의 절정으로 설명한다. 이는 영화의 장면이 **문학적 은유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는 뜻이므로, 문학과 영화의 미적 자질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NoteBase

문 17. 다음 ( ) 속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방랑시인 김삿갓의 시는 해학과 풍자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시든 단숨에 써 내리는 一筆揮之인데다 가히 ( )의 상태라서 일부러 꾸미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① 花朝月夕
② 韋編三絶
③ 天衣無縫
④ 莫無可奈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천의무봉(天衣無縫)은 시나 글 등이 일부러 꾸민 흔적 없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움을 뜻한다. 지문의 '일부러 꾸미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고 아름답다'와 의미가 통한다.

공통 해설

천의무봉(天衣無縫)은 '하늘의 옷에는 솔기가 없다'는 뜻으로, 시나 글 등이 **일부러 꾸민 흔적 없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움**을 비유한다. 옷을 이어 붙인 자국인 솔기가 없듯이, 작품에서도 억지로 다듬거나 꾸민 흔적을 찾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지문은 김삿갓의 시가 '일부러 꾸미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고 아름답다'고 설명하므로, 빈칸에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천의무봉'이 들어간다. 앞의 '일필휘지(一筆揮之)'는 붓을 한 번 휘두르듯 글을 **단숨에 써 내려감**을 뜻한다. 일필휘지가 글을 써 내는 방식을 나타낸다면, 빈칸의 천의무봉은 그렇게 쓴 작품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NoteBase

문 18.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잘못된 것은?

① 그는 여러 차례 TV 출연으로 유명세(有名勢)를 치렀다.

② 누가 먼저 할 것인지 복불복(福不福)으로 정하기로 했다.

③ 긴박한 상황이라 대증요법(對症療法)을 쓸 수밖에 없었다.

④ 사건의 경위(經緯)는 알 수 없지만, 결과만 본다면 우리에게 유리하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유명세'의 '세'는 기세를 뜻하는 勢가 아니라 **세금 세(稅)**이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탓에 겪는 불편이나 곤욕을 세금에 빗댄 말이므로 '有名稅'로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유명세'는 **有名稅**로 쓴다. 有名은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뜻이고, 稅는 '세금 세'이다. 유명해진 탓에 겪는 불편이나 곤욕을 세금에 빗댄 말이므로, '기세 세'인 勢를 쓴 有名勢는 잘못된 표기이다.

② O: '복불복'은 **福不福**으로 쓴다. 福은 '복 복', 不은 '아니 불'로, 복이 있고 없음, 곧 운수가 좋고 나쁨을 뜻한다. 무엇이 걸릴지 운에 맡겨 순서를 정한다는 문맥에 쓰인 말이다.

③ O: '대증요법'은 **對症療法**으로 쓴다. 對는 '대할 대', 症은 '증세 증', 療는 '병 고칠 료', 法은 '법 법'이다. 병의 원인을 없애기보다 드러난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법을 뜻하며, 비유적으로는 당면한 문제에 임시로 대응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긴박한 상황에서 우선 대처한다는 문맥에 쓰였다.

④ O: '경위'는 **經緯**로 쓴다. 經은 '날실 경', 緯는 '씨실 위'로, 본래 직물의 세로실과 가로실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일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뜻하므로, '사건의 경위'는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났는지를 나타낸다.

NoteBase

문 19. 다음 글에서 추론한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도시화, 산업화,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뒷방살이 신세로 전락한 한국 농업의 새로운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농업은 경제적 효율성이 뒤처져서 사라져야 할 사양 산업이 아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와 식량 및 에너지 등 자원 위기에 대응하여 나라와 생명을 살릴 미래 산업으로서 농업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농본주의의 기치를 앞세우고 농업 르네상스 시대의 재연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불확실성의 터널을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농업은 자원 순환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산업이기 때문이다. 땅의 생산력에 기초해서 한계적 노동력을 고용하는 지연(地緣) 산업인 동시에 식량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천적인 생명 산업이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한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여 이용한 뒤에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유목민적 태도가 오늘날 위기를 낳고 키워 왔는지 모른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오늘날의 역사에 동승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넘겨주는 정주민의 문화적 지속성을 존중하는 농업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 받는 이유에 주목할 만하다.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 성과를 수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잠재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① 고도성장을 도모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지양하였다.

② 효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경제 시스템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③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에 비해 정주 생활을 하는 민족이 농업의 가치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다.

④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효용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과학 기술의 부작용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과학 기술의 부작용을 성찰할 필요'는 글에서 뒷받침되지 않는다. 글은 **과학 기술의 발전 성과를 수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하는 데 농업의 잠재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첫 문단은 도시화·산업화·고도성장 과정에서 농업이 '우리 경제의 뒷방살이 신세'로 전락했다고 설명한다. 이는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농업의 비중과 위상이 낮아졌음**을 뜻하므로, 농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지양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② O: 글은 경제적 효율성이 뒤처진다는 이유로 농업을 사양 산업으로 보는 관점을 비판한다. 농업은 기후 변화와 식량·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미래 산업이므로,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존 기준만으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산업의 가치를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③ O: 글은 자원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유목민적 태도가 위기를 키웠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반면 정주민의 문화적 지속성은 자원을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넘겨주는** 태도로 설명한다. 이처럼 자원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태도가 자원 순환적·환경 친화적 산업인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더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④ X: 마지막 문장은 과학 기술의 발전 성과를 수용하면 농업이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하는 녹색 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고 설명한다. 과학 기술의 부작용에 대한 성찰을 그 조건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선지의 '과학 기술의 부작용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과학 기술의 발전 성과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로 고쳐야 글의 논지에 부합한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쓴이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효(孝)가 개인과 가족, 곧 일차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라면, 충(忠)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곧 이차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행위를 규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효를 순응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봉건 가부장제 사회의 유습이라고 오해하는가 하면, 충과 효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아졌다. 다음을 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윗사람의 명령을 거역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 윗사람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난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드물다.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생기기 때문이다. 효도와 우애는 인(仁)의 근본이다."

위 구절에 담긴 입장을 기준으로 보면 효는 윗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으로 연결된다. 곧 종족 윤리의 기본이 되는 연장자에 대한 예우는 물론이고 신분 사회의 엄격한 상하 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구절만을 근거로 효를 복종의 윤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효란 가족 윤리 또는 종족 윤리로서 사회 윤리였던 충보다 우선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교의 기본 입장은 설사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유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자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비해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관계로서 의리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로 본다. 의리가 맞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① 효는 봉건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롯한 일차적 인간관계이다.

② 효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므로 조건 없는 신뢰에 기초한 덕목이다.

③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는 것이 유교적 윤리의 한 바탕이다.

④ 충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효의 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인의 이치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글쓴이는 부모의 명령이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따르는 **맹목적 복종은 불효**라고 설명한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도 의리가 맞지 않으면 끊을 수 있다고 보므로,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글쓴이는 효를 봉건 가부장제 사회의 유습으로 보는 시각을 오해라고 지적한다. 효는 **개인과 가족 사이의 일차적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규정하는 윤리**이다. 일차적 인간관계에 관한 윤리라는 설명을 봉건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롯했다는 주장으로 바꿀 수는 없다.

② X: 글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자연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과 조건 없이 신뢰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다르다**. 부모의 명령이라도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며,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오히려 불효라고 본다.

③ O: 글쓴이는 부모의 명령에 대한 맹목적 복종도 불효라는 유교의 입장을 제시한다. 또한 임금과 신하는 의리로 맺어진 관계이므로 **의리가 맞지 않으면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부모나 임금 등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적인 의무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④ X: 글에서는 가족 윤리인 **효가 사회 윤리인 충보다 우선**한다고 설명한다. 인용된 구절에서도 인의 근본으로 제시한 것은 효도와 우애이다. 따라서 충을 다하여 효에 도달한다는 설명은 글의 관계를 거꾸로 이해한 것이다. 효와 충은 각각 가족 관계와 가족 밖의 사회적 관계에 적용되는 윤리로 구별해야 한다.

NoteBase